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가 스포츠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해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 체육 육성,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나주종합스포츠파크와 KTX·SRT 나주역이 연결된 교통 인프라는 나주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나주의 딸이자 세계배드민턴 여제인 안세영이라는 걸출한 스포츠 스타의 존재 역시 '스포츠산업도시 나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스포츠 관광 산업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점검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KTX·SRT 나주역과 연결된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영산강변에 위치해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나주, '스포츠·관광 산업 허브 도시'로 비상

■ 종합스포츠파크와 KTX·SRT 나주역... 전국 최고 접근성

나주시가 스포츠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우수한 스포츠 시설과 교통 인프라이다. 2011년 완공된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선수합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이 외에도 핸드볼, 배구 경기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관, 씨름장, 물러 경기장, 족구장, 국궁장, 스쿼시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노후 체육관을 보수해 준공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체육시

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경기장에 접근할 수 있어 스포츠 행사 개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결합한 구조는 나주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 각종 대회 잇따라 개최...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나주시는 매년 각종 스포츠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스포츠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전국 마라톤대회와 싸이클대회, 그라운드, 육상대회, 사격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대회가 나주에서 개최되면서 선수단과 가족, 동호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숙박과 음식, 관광

회와 전지훈련 참가자들이 나주에서 머물며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체류형 스포츠 관광 전략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나주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관광 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 전지훈련 최적지... 전국 스포츠팀 발길 이어져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주는 전국 스포츠팀들의 전지훈련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체육시설, 편리한 교통 환경 덕분에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나주를 찾고 있다. 지난해 육상, 사격, 사이클 등 4개 종목에 27개 팀, 연인원 4600여 명이 나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과 음식, 관광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전지훈련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스포츠팀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훈련 시설 및 체류 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나주 홍보 대사 활약

나주가 스포츠 도시로 주목받는 데에는 세계 정상급 스포츠 스타의 존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 출신으로 배드민턴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선 안세영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배드민턴계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나주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고향 나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안세영 선수는 나주 체육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나주시는 안세영 선수의 스포츠 스타 이미지를 활용해 스포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 '나주방문의 해'... 스포츠 관광에도 총력

나주시는 2026년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 관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참가자들이 나주에서 체류하며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1박 2일' 체류형 관광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1박2일'은 스포츠대회 참가와 함께 나주에 머물게 함으로써 관광과 소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영산강과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나주배 등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관광객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층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앞으로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고 스포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

츠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이벤트 확대,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숙박과 음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나주는 온화한 기후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스포츠파크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KTX·SRT 나주역이 연결된 도시"라며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전국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한 스포츠 관광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나주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다양한 체육 인프라 보유... 각종 대회·전지훈련 '메카'

국내 유일 종합스포츠 시설과 KTX·SRT 나주역 연결 '2026 나주방문의 해' 스포츠 관광 산업도시 '박차'

설이다. 지난 3월 12일 개관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러닝 트랙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등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와 SRT가 정차하는 나주역이 종합스포츠파크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소비유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나주에서 개최된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는 20여 개 종목에 30여 개 대회에 달하며 3만 7000여 명의 선수단이 나주를 찾았다.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대



영산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2025 영산강 그라운드'.



지난 3월 개장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now naju
2026 나주방문의 해
600년 전통 흥어의 거리,
홍어와 한우 양귀비꽃의 향연!

제22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주최·주관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